다곤

Dagon

H.P. 러브크래프트 (1890–1937)

1919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5-26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H.P. Lovecraft, "Dagon" (The Vagrant 1919년 11월)

저자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Howard Phillips Lovecraft, 1890–1937)

원전 출처

Wikisource / Weird Tales (퍼블릭 도메인)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6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화물 관리인으로 타고 있던 정기선이 독일 해적선에 붙잡힌 곳은, 태평양에서 가장 탁 트여 있으면서도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구역이었다. 당시 세계 대전은 막 시작된 참이었고, 적군의 해군은 이후에 보여줄 잔혹함에는 미치지 못했다. 덕분에 우리 배는 정당한 전리품으로 취급되었고, 선원인 우리 역시 해군 포로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공정함과 배려를 받았다. 포획 측의 처우는 실로 관대했다. 배가 붙잡힌 지 닷새 만에, 나는 며칠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물과 식량을 챙겨 작은 보트를 타고 홀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마침내 표류하며 자유를 얻었을 때, 나는 내가 처한 상황을 거의 알지 못했다. 항해술에 능한 이가 아니었던 나는 태양과 별을 보고 적도보다 조금 남쪽에 있다는 사실만을 막연히 짐작할 뿐이었다. 경도가 어디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고, 눈앞에는 그 어떤 섬이나 해안선도 보이지 않았다. 날씨는 계속해서 화창했다. 나는 타는 듯한 태양 아래서 목적 없이 떠다니며 셀 수 없이 많은 날을 보냈다. 지나가는 배가 나타나기를, 혹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의 해안에 닿기를 기다리며 말이다. 하지만 배도, 육지도 나타나지 않았다. 끊임없이 넘실거리는 푸른 바다의 광활함 속에서, 나는 홀로 남겨진 채 절망하기 시작했다.

변화는 내가 잠든 사이에 일어났다. 그 구체적인 과정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꿈에 시달리며 뒤숭숭한 잠이었으나, 끊김 없이 이어진 잠이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내가 지옥 같은 검은 진흙탕에 절반쯤 빨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끈적한 진흙은 내가 볼 수 있는 곳까지 단조로운 물결을 그리며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내 배는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좌초되어 있었다.

그토록 경이롭고 예상치 못한 풍경의 변화를 마주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경탄이었을 것이라 짐작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상 나는 경탄보다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공기 중에는, 그리고 썩어가는 흙 속에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의 지저분한 진흙 사이로는 썩어가는 물고기 사체와, 차마 말로 형언하기 힘든 정체 모를 것들이 삐죽이 솟아올라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절대적인 침묵과 황량한 광활함 속에 깃든 그 형언할 수 없는 흉측함을, 고작 몇 마디 말로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들리는 소리도, 보이는 것도 검은 점액질이 끝없이 펼쳐진 풍경뿐이었다. 그러나 그 완벽한 정적과 단조로운 풍경은 오히려 구역질 나는 공포가 되어 나를 압도했다.

태양은 구름 한 점 없이 잔혹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 하늘은 마치 내 발밑에 펼쳐진 잉크빛 늪을 그대로 투영하듯, 내 눈에는 거의 검게 보일 정도였다. 좌초된 보트 안으로 기어 들어가며, 나는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례 없는 화산 활동으로 인해 해저의 일부가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른 것이 분명했다. 수억 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심해 속에 숨겨져 있던 영역이 드러난 것이다. 새로 솟아오른 땅의 범위가 어찌나 넓은지, 아무리 귀를 기울여 보아도 밀려드는 파도 소리조차 전혀 들리지 않았다. 죽어 나뒹구는 것들을 잡아먹을 바닷새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몇 시간 동안 나는 옆으로 뒤집힌 보트에 앉아 생각에 잠기거나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태양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임에 따라, 뒤집힌 보트는 내게 약간의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땅의

끈적임이 조금씩 가셨고, 머지않아 여행을 떠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마를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사라진 바다를 찾고 구조의 희망을 품은 채 육지로 이동할 준비를 하기 위해 음식과 물을 챙겨 배낭을 꾸렸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땅이 충분히 말라 있어 나는 수월하게 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생선 비린내가 미칠 듯이 진동했지만, 더 중대한 문제들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에 그 정도 악취는 개의치 않았다. 나는 미지의 목표를 향해 대담하게 나아갔다. 하루 종일 나는 서쪽을 향해 꾸준히 전진했다. 일렁이는 사막의 그 어떤 지형보다 높게 솟아오른, 멀리 보이는 언덕이 나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그날 밤은 그곳에 야영을 했고, 다음 날에도 여전히 그 언덕을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언덕은 처음 발견했을 때와 비교해 별로 가까워진 것 같지 않았다. 넷째 날 저녁이 되어서야 나는 마침내 그 언덕의 기슭에 다다랐다. 멀리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높은 언덕이었다. 언덕과 지표면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자리 잡고 있어, 언덕의 형체가 주변 지형으로부터 더욱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기력을 다해 언덕을 오를 엄두가 나지 않았던 나는 그 언덕의 그림자 아래에서 잠을 청했다.

그날 밤 내 꿈이 왜 그토록 격렬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지러지며 기이하게 불룩해진 달이 동쪽 평원 위로 높이 솟아오르기도 전에,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다시는 잠들 수 없으리라 다짐했다. 내가 겪은 환영들은 다시는 견뎌낼 수 없을 만큼 끔찍했기 때문이다. 달빛 아래에서 보니, 낮에 여행을 시작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깨달았다. 타는 듯한 태양 빛만 피했더라면 기력을 덜 소모했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은 해 질 녘 나를 주저하게 만들었던 그 언덕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배낭을 챙겨 들고 언덕 꼭대기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의 단조로움이 내게 막연한 공포를 주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언덕 정상에 올라 반대편을 내려다보았을 때 느낀 공포는 그보다 훨씬 컸다. 그곳에는 헤아릴 수 없이 깊은 구덩이 혹은 협곡이 자리 잡고 있었고, 달빛조차 아직 충분히 높이 떠오르지 못해 그 검은 심연을 비추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마치 세상의 끝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벼랑 끝에 매달려 영원한 밤이 지배하는, 끝을 알 수 없는 혼돈의 구렁텅이를 내려다보았다. 공포가 엄습하는 와중에, 실낙원과 그 속에서 사탄이 형체조차 갖추지 못한 어둠의 영역을 기어오르던 끔찍한 모습이 기이한 회상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달이 하늘 높이 떠오르자, 계곡의 경사면이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가파르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위 선반과 돌출된 암벽들이 발 디딜 곳을 적당히 제공해 주어 내려가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고, 수백 피트 정도를 내려가자 경사는 완만해졌다.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충동에 이끌려, 나는 바위 사이를 힘들게 기어 내려갔다. 그러고는 아래쪽의 완만한 경사면에 서서, 아직 빛 한 줄기 닿지 않은 저 스틱스강처럼 어둡고 깊은 심연을 응시했다.

정신이 아득하고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과학자나 고고학자가 느낄 법한 어떤 전율이 없지는 않았다. 나는 주변을 더 자세히 살폈다. 달은 이제 천정 근처에 다다라, 협곡을 에워싼 거대한 절벽 위로 기이하고도

선명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그 빛 덕분에 협곡 바닥에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물줄기는 양방향으로 굽이치며 시야 너머로 사라져 갔고, 경사면에 서 있는 내 발치까지 거의 닿을 듯 넘실거리고 있었다.

심연 너머로 잔물결이 거대한 단일 암석의 밑동을 훑고 지나갔다. 나는 그 표면에서 새겨진 비문과 조잡한 조각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글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상형문자 체계로 쓰여 있었으며, 지금까지 책에서 보았던 그 어떤 것과도 달랐다. 문자의 대부분은 물고기, 장어, 문어, 갑각류, 연체동물, 고래와 같이 정형화된 해양 생물의 형상을 띠고 있었다. 몇몇 글자들은 분명 현대 세계에는 알려지지 않은 해양 생물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나는 바다 위로 솟아오른 평원에서 그 생물들이 부패해가는 형체를 목격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나를 완전히 매료시킨 것은 바로 그 부조 조각들이었다. 거대한 크기 덕분에 수면 너머로도 그 형체가 또렷이 보였다. 그 조각들은 마치 구스타브 도레가 질투할 만큼 정교한 부조들이었다. 내 생각에 그 조각들은 인간을 묘사한 듯했다. 적어도 어떤 종류의 인간 말이다. 다만 그 생물들은 해저 동굴 같은 물속에서 물고기처럼 유희를 즐기거나, 파도 아래 잠겨 있는 듯한 거대한 단일 석조 신전에서 경배를 올리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다. 그들의 얼굴과 형체에 대해서는 차마 자세히 말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아득해지기 때문이다.

그 모습은 에드거 앨런 포나 벌워의 상상력을 초월할 정도로 기괴했다. 물갈퀴가 달린 손과 발, 충격적일 만큼 넓고 흐물거리는 입술, 유리알처럼 번들거리며 튀어나온 눈 등 다시 떠올리기엔 불쾌한 특징들이 가득했지만, 전체적인 윤곽만큼은 저주스러울 정도로 인간과 닮아 있었다. 기이하게도 그 조각들은 배경이 되는 풍경과 비교했을 때 비율이 엉망으로 새겨진 듯 보였다. 예를 들어, 어떤 생물은 자신보다 겨우 조금 더 큰 고래를 죽이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나는 그 형상들이 기괴하고도 기이할 만큼 거대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내 그것들은 그저 원시적인 어족이나 항해 부족이 상상해낸 신들에 불과할 것이라 결론지었다. 필트다운인이나 네안데르탈인의 시조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 그 부족의 마지막 후손마저 이미 사라져 버린 아주 먼 옛날의 신들 말이다. 가장 대담한 인류학자조차 상상할 수 없는 과거를 이토록 예기치 않게 엿보았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끼며, 나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서 있었다. 내 앞의 고요한 수로 위로 달빛이 기묘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그것이 보였다. 수면 위로 떠오를 때 물결이 아주 미세하게 일렁였을 뿐인데, 검은 바다 위로 그 형체가 미끄러지듯 모습을 드러냈다. 거대하고, 마치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를 연상케 할 만큼 흉측한 그것은, 악몽 속에서나 나올 법한 거대한 괴물처럼 단단한 바위 기둥을 향해 돌진했다. 그것은 거대한 비늘 덮인 팔로 바위를 휘감더니, 끔찍하게 생긴 머리를 숙이고 일정한 박자에 맞춰 기괴한 소리를 내뱉었다. 아마 그때 나는 미쳐버린 것이리라.

경사면과 절벽을 미친 듯이 기어올랐던 일, 그리고 난파된 배로 돌아오기까지 겪었던 그 망상 같은 여정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다. 아마도 나는 끊임없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다. 노래조차 나오지 않을 때는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배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어쨌든, 천둥소리와 함께 대자연이 가장 격정적인 상태에 빠졌을 때나 내뱉는 기괴한 소리들을 들었던 것만은 분명히 기억한다.

어둠 속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병원에 있었다. 대양 한가운데서 내 보트를 구조한 미국 선박의 선장이 나를 그곳으로 데려온 것이었다. 나는 섬망 상태에서 많은 말을 내뱉었으나, 정작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는 거의 없었다. 구조대원들은 태평양에서 일어난 지각 변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나 역시 그들이 도저히 믿지 못할 사실을 굳이 우겨서 말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예전에 나는 한 유명한 민족학자를 찾아가 물고기 신인 다곤에 관한 고대 블레셋 전설을 주제로 기묘한 질문들을 던지며 그를 즐겁게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가 지독할 정도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인물이라는 사실을 곧 깨달았기에, 더는 질문을 이어가지 않았다.

그것을 목격하는 것은 밤이다. 특히 달이 보름을 지나 기울어가는 볼록달일 때면 더욱 그렇다. 모르핀을 써보기도 했다. 하지만 약물은 잠시 동안의 안식만을 줄 뿐이었고, 오히려 나를 절망적인 노예로 만들어 그 손아귀에 가두어 버렸다. 그래서 이제 나는 모든 일을 끝내려 한다. 동료 인간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든, 혹은 경멸 섞인 비웃음을 사기 위해서든, 내가 겪은 일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 나는 종종 자문하

곤 한다. 이 모든 것이 그저 환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독일 군함으로부터 탈출한 뒤, 망망대해 위 작은 보트에서 햇볕에 타들어 가며 헛소리를 내뱉던 그때, 열병이 만들어낸 기괴한 환각은 아니었을까 하고 말이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소름 끼칠 정도로 생생한 환영뿐이다. 심해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몸서리를 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곳의 미끈거리는 바닥을 기어 다니며 허우적거릴,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존재들 때문이다. 그들은 고대의 석상을 숭배하며, 물에 젖은 화강암으로 만든 해저 오벨리스크에 자신들의 가증스러운 형상을 새겨 넣고 있을 것이다.

나는 언젠가 그들이 파도 위로 솟구쳐 오를 날을 꿈꾼다. 악취 나는 발톱으로 전쟁에 지쳐 나약해진 인류의 잔해를 낚아채 끌고 갈 그날을 말이다. 대지는 가라앉고, 온 세상이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어두운 심해의 바닥이 솟아오를 그날을 나는 꿈꾼다.

끝이 머지않았다. 문밖에서 소리가 들린다. 거대하고 미끈거리는 무언가가 문을 들이받으며 육중하게 움직이는 소리다. 그것이 나를 찾아내게 두지 않으리라. 세상에, 저 손은! 창문이다! 창문이야!